

2010 새해에는

송기진 광주은행장

올 한해 어닝서프라이즈 도전
지역 사회에 이익 환원 할것

(사상 최대 실적)

“광주은행이 어닝 서프라이즈(earning surprise·사상 최대 실적)에 도전하는 한해가 될 것 입니다.”

15일 행장실에서 만난 송기진 광주은행장은 “지난해 광주은행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해였다면 올해는 경영 수익창출로 내실을 다지고 세계 100대 은행 진입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행장은 “세계 100대 은행 진입 41주년 기념사에서 제시한 ‘2050년 세계 100대 은행진입’이라는 비전을 실천하는 첫 해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지난해 금융계의 가장 큰 영예인 아시아 금융문화대상 수상, 제14회 중소기업 금융지원 기관 부문 대통령 수상 등 대외적인 경영 성과로 얻은 자신감이 깔려 있다.

송 행장은 “세계 100대 은행 진입은 결코 싹기루 같은 얘기가 아니다. 1968년 2억원에 못미치는 자본금으로 출발했던 광주은행이 조 단위

금호 살리기 적극 지원...세계 100대 은행 진입 원년 선포

은행으로 성장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직원들 모두가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정신으로 똘똘 시장을 주도하고, 세계 유력 은행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간다면 스페인의 산탄데르 은행처럼 광주은행도 동북아 중심은행으로 우뚝 설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광주은행이 올해를 새로운 도약의 해로 정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도전’이다”며 “올해 금융산업 환경이 순탄치 않을 거라는 전망이 있지만, 수세적인 경영에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광주은행은 올 경영전략을 전남·서울 지역 등 주요 타깃시장 공략으로 잡았다. 전남 22개 시·군의 금고 등 지자체 금융 시장으로 영업권을 확장하기 위해 점포망을 대폭 확충

하고, 수익 극대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 매출 증대와 수익증권·바카슈랑스 수입 수수료 증대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송 행장은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등 공적인 책무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며 “도내에선 문화가 척박한 이 지역에서 소외된 이웃과 노인,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실제 광주은행은 경영수익의 6% 사회 환원의 약속을 꾸준히 실천해 2009 대한민국 CEO 대상에서 사회공헌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광주은행은 올해 최대 경영수익 창출을 목표로 잡았지만, 외환영업, PF(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 등을 통해 새로운 수입원을 발굴하되, 대출금리 인상 등 서민경제에 영향을 우려되는



부정적인 정책은 쓰지 않을 방침이다.

송 행장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으로 타격이 우려되는 연관 기업들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힘을 쏟겠다”며 “최근 시행한 금호 관련 협력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방안에 머물지 않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원책을 꾸준히 찾겠다”고 다짐했다.

보성 출신으로 별교상고와 건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상업은행 노조위원장, 우리은행 수원기영업본부장, 중소기업 고객본부장(부행장)을 지냈다. 문화부장관표창, 동탑산업훈장, 한국경제경영교육학회 경영자대상, 전국경제인연합회 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사진=내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주간 증시 포커스

추가상승 주도주 공략하라

금주는 지난주 후반의 연장선 상에서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흐름이 예상된다. 특히 연초에 나타났던 외국인들의 일시 차익실현이 다시 적극적인 매수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도 증시의 상승 동력 회복에 긍정적이다.

그러나 수출주, 혹은 같은 IT주 사이에서도 구체적인 업종별 세분화를 통한 차별적인 접근전략은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본적인 펀더멘탈 변수에 있어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의 수위가 업종별로 차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IT주 가운데서도 제품가격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압축하는 종목선정을 권한다. 다만 연초에 급락했던 원화환율이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상에 단기간 과도했던 하락폭으로 인해 기술적인 반등세가 예상된다. 따라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가 아닌 수출주라 하더라도 원화 강세로 인해 높아졌던 하락압력은 크게 완

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그리고 통신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전방산업의 개선 조짐은 관련 부품업체들의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코스타다 관련주나 중소형주들에 대한 주목을 높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연초부터 하이닉스나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업체들을 둘러싼 M&A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점도 관심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금주는 시장 주변 환경 및 수급구도의 개선, 그리고 주도주의 부각을 바탕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대응에 나서되, 접근대상을 지나치게 확대시키기보다는 주도주 중심의 압축적인 대응의 유지를 권한다.



박종도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막걸리 외국서도 히트...수출 42%↑

지난해 국내 최고 히트상품인 막걸리가 한류 열풍을 타고 수출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막걸리 인기와 경기침체의 여파로 포도주와 위스키 수입은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막걸리 수출액은 총 627만7천 달러로 전년보다 41.9%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막걸리 수출액은 120만2천

달러로 월 단위 수출액으로는 처음으로 100만 달러가 넘었다.

지난해 막걸리 수출액은 10년 전인 1999년(70만5천달러)에 비해서는 9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전체 수출액의 86.0%(540만 달러)를 차지했고 뒤이어 미국(46만3천 달러), 중국(13만9천 달러), 베트남(10만9천 달러) 등 20여 개국에 막걸리가 수출됐다. /연합뉴스

기아차 ‘쏘울 스마트’ 오늘부터 시판

기아차는 고객에 선호하는 사양을 대거 추가한 ‘쏘울 스마트’를 18일부터 시판한다.

이 모델은 1.6 가솔린과 1.6 디젤 U고급 트림에 자동요금결제시스템이 장착된 룸미러와 후방주차보조시스템, 전동접이 및 열선내장 아웃사이드미러를 갖췄다.

또 16인치 알루미늄휠과 폴딩 타입 무선도어 리모컨 키 및 블랙박스 인

테리어가 적용됐다. 판매 가격은 가솔린 1.6 모델이 1천550만원, 디젤 1.6 모델이 1천786만원이다.

기아차는 쏘울 스마트 출시를 기념해 이달 말까지 쏘울 브랜드 사이트(http://soul.kia.co.kr)에서 퍼즐 게임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편 기아차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대형차 수요가 감소하자 대형 세



단인 오피러스의 수출을 중단했다. 대신 지난해 12월부터 본격 생산을 시작한 준대형 신차인 K7을 수출 전선에 투입하기로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취업자 10명 중 1명 ‘워킹푸어’

<근로빈곤층>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취업자 10명 가운데 1명은 ‘워킹푸어(Working Poor·근로빈곤층)’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 현석원 연구위원은 17일 ‘사전적 워킹푸어 대책 시급하다’는 보고서에서 “2008년 기준 국내 워킹푸어는 273만명으로 총 취업자 2천357만명의 11.6% 수준”이라

고 분석했다. 현 위원은 일본의 워킹푸어 분류 기준에 따라 3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인 102만6천603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를 워킹푸어로 분류했다. 같은 해 일본의 워킹푸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26.2%를 차지했다.

현 위원은 “정부가 대책반을 구성하고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Large advertisement for insurance and travel services. Top section: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Use good hearing aids) with '국제보청기' (International Hearing Aids) and contact numbers. Middle section: '크루즈타고 제주여행' (Cruise to Jeju Island) and '구정연휴 무안출발 대만 전세기' (New Year's Eve departure to Taiwan). Right section: 'HANATOUR' (HANA TOUR) with '구정연휴 상품바람 임박!' (New Year's Eve products are imminent!). Bottom section: 'WOLLA' logo and other service providers.